

포용적(Inclusive) 접근의 무용예술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 교육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

김아롱** · 조은숙***

I. 서론

II. 포용적 예술의 이해

III. 포용적 접근의 무용예술교육 방향성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본 연구는 최근 국내 장애예술계가 주목하고 있는 ‘포용적(Inclusive)’ 예술의 관점과 앨리스 폭스(Alice Fox, 이하 폭스)¹⁾의 포용적 예술 활동 원리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포용적 접근으로서의 무용예술교육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포용적 접근에 기반한 무용예술교육의 연구 및 실행을 위한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장애예술계에서의 ‘포용적 예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협업으로 이루어 낸 예술적 성취를 의미한다(박신의, 심규선, 주명진, 2018, p. 48). 영국에서 시작된 이 포용적 예술은 예술 무대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장애인들을 포함한 소수집단의 예술적 언어를 존중하여 이들의 다양한 정체성과 욕구를 반영하고 포용하기 위해 탄생한 개념으로, 최종적으로는 ‘예술의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of the arts)’을 목표로 한다(한국장애예술문화원, 2018, pp. 65-66).

인간의 신체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현 사회의 이분법적 논리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편견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여 장애인을 소외시켜 왔다. 국내에서 장애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김도현은 자신의 저서 「장애학의 도전」(2019, pp. 49-83)에서, 장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개인의 신체가 ‘손상’된 까닭에 장애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무언가를 수행하고 싶으나 ‘불가능한 상태’에 내몰릴 때 장애를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서

* 이 연구는 2021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주저자,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전공 강사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무용전공 교수, eschod@hanmail.net

1) 현재 영국의 포용적 예술을 선도하는 인물이다. 장애를 지닌 예술가들의 교육과 협업을 수행하는 로켓아티스트(Rocket Artists Studio)의 디렉터이자 영국 브라이튼대학교(University of Brighton) 예술대학의 부학장이다. 2004년 브라이튼 대학교에 포용적 예술 활동(Inclusive Arts Practice) 석사 과정을 개설하였는데 해당 영역 전공의 석사과정으로는 세계 유일하다. 2018, 2019년도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주최로 국내에서 포용적 예술 관련 강연을 펼쳤으며 국내 장애예술가들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포용적 접근의 퍼포먼스(Unlearning at the Museum, In-Out, 2019) 작업을 수행했다.

이러한 경험은 더욱 극명해진다. ‘일할 수 있는 몸’과 ‘일할 수 없는 몸’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비장애 중심주의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고, 본 연구자들 또한 신체적인 측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짓는 기존의 이분법적 논리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김효진, 최해선 외 3인의 저서 「모든 몸은 평등하다」(2012, p. 42)는 서로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다섯 명의 장애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간 우리 사회가 분명히 다른 각각의 신체와 삶들을 ‘장애’라는 단 하나의 범주 안에 인위적으로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동시에 장애라는 정체성은 인종이나 민족, 젠더보다 훨씬 유동적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몸 안을 가로지르며 현현하는 ‘개별성’과 ‘고유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애예술가 김원영 또한 그의 저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2018, pp. 186-196)에서 정상성이나 신체적 온전함으로 통하는 ‘보편주의’로 환원되지 않는 장애의 ‘고유성’을 강조한다. 즉, “장애인은 비정상성이나 결여된 존재가 아니라 고유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은 비장애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인식하고, 비장애인보다 더 넓고 깊은 공간을 감각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장애가 예술 영역에서 ‘결핍’이 아닌 새로운 예술 언어를 창조하는 ‘新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장애를 경험한 신체의 고유성과 감각에 주목한다면, 장애 및 비장애의 다양성 존중을 실현함과 동시에 개인의 고유성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표현으로써 예술 형식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포용적 예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용적 예술은 장애에 대한 수많은 담론과 쟁점을 예술적 실천이라는 세심한 시각으로 접근해 장애와 비장애라는 이분법적 개념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을 매개로 한 인간의 다양성 및 고유성에 대한 진지한 사유 기회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에 포용적 예술의 모범적 실천 사례로 소개된 폭스의 포용적 예술 활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한 예술적 협업이 다양성과 고유성의 가치를 어떻게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를 증명한 유의미한 실천을 현시하였다. 폭스의 포용적 예술 활동의 특징은 장애를 단순히 창작 소재로 활용하거나 장애 그 자체만을 주제로 일차원적인 예술 창작을 전개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협업에서 그들에게 내재된 본질적인 창작 욕구와 수월성을 상호 주체적으로 추동하여 새로운 창작 과정과 결과물을 선보이는 근원적 원리를 제시한다는 데 있다.

폭스의 이러한 모범적 실천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상호 간의 협업을 예술적 성취의 핵심 요소로 함축했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이 주류가 된 현 무용예술교육 영역이 보다 확장된 의미의 교육적 방향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앞으로의 장애예술교육이 치료적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관점으로 실천 방향을 도모해야 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유진 등(2018, p. 30)의 ‘장애인 무용교육 연구동향 분석’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무용교육 분야 내 장애 관련 논문 87편 중 상당수가 장애인의 치료 및 신체 재활을 목적으로 한 무용교육 연구들이다. 장애인 무용교육을 교수-학습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 또한 장애 유형에 따른 무용교육의 이론적, 실제적 실천을 제시한 연구들(강미리, 박순자, 2021; 최현주, 김두영, 김호연, 2020; 배소정, 2020; 유영은, 박영애, 2019; 박영하, 2008)이 대다수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여러 장애 유형에 따른 실질적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재활 또는

치유적 측면으로 인식하는 연구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기에 다양성이라는 기초 아래 장애와 비장애 간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 창작의 실질적 주체로서의 장애인의 역할과 가치를 논한 포용적 예술의 관점과, 폭스가 실천한 포용적 예술 활동은 장애예술교육의 방향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포용적 예술의 관점으로 무용예술교육에 접근한 연구 제안 또한 매우 부재하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필요성을 상당히 뒷받침한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포용적 예술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폭스의 포용적 예술 활동의 자세한 면면과 주요 원리를 고찰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또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토대로 포용적 접근에 기반한 무용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II. 포용적 예술의 이해

1. 포용적 예술의 관점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²⁾’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소수집단의 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의미의 예술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상대적 개념인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이란 개념에서 도출된 용어다(한국장애예술문화원, 2018, pp. 62-66). 영국에서 최초로 발생하고 통용되기 시작한 이 용어는 2006년 영국 신노동당(New Labour)정부가 ‘교육을 위한 창조 파트너십 정책(Creative Partnerships Policy for Education)’의 대표 어젠다로 ‘포용적 예술’이란 개념을 제시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안채린, 2020, p. 9). 이 ‘포용적 예술’이 상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문화예술(Great arts and culture for everyone)’로의 정립으로, 장애를 비롯한 인종이나 민족, 신념, 성적 정체성, 계층 등 인간의 문화예술 참여를 방해하는 모든 요인들을 넘어서려는 실천적 예술 정책을 추구한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8, p. 62). 이러한 지향점을 토대로 한 포용적 예술은 사회문화적 맥락 가운데 발생하는 장애의 소외 배경에 특히 주목하여, ‘문화적 평등’과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기치 하에 영국 장애예술계³⁾의 지원 정책과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되었다(Benjamin, 2001, pp. 21-24).

그렇다면 포용적 예술은 장애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문화적 평등과 다양성 측면에서, 포용적 예술은 인류의 긴 역사 동안 예술을 도구 삼아 장애에 자행되어 왔던 여러 사회적 선입견과 편견에 저항한다. 실제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분리, 소외, 배제라는 사회적 억압(양경언, 2018; 이종정, 2018; 조주희, 2021)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장애 관련 담론에서 ‘사회적 차별’ 극복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를 ‘수평적 차이’로 보는 동시에 ‘다양성의 하나’로

2) 우리나라에서 포용적 예술이라 번역되는 인클루시브 아츠는 미국에서 통합적 교육의 측면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다. 영국에서는 영국 정부가 2006년 국가적 정책으로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장애예술 또는 교육과 관련한 용어로 사용되었다(Benjamin, A., 2001, p. 38).

3) 포용적 예술계는 작품 창작과 제작 모델, 틀에 따라 예술과 장애(arts & disability), 장애예술(disability art), 장애인 예술가(artist with disability)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각각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업, 장애의 경험을 반영한 예술활동, 장애 고유의 창작활동 등으로써 장애예술 접근의 다차원적 개념을 드러내고 있다(제주문화재단, 2020, pp. 24-25).

인식하는 포용적 예술의 관점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의 규범이 정의한 ‘정상성(Normalcy)’에 대한 지배담론(Dominant discourse)을 비판적으로 재고해 보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회에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 정상과 비정상, 또는 완전과 불완전이라는 뿌리 깊은 이분법적 대립 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장애와 비장애의 ‘평등’을 지향하는 기존의 장애 담론조차 비장애 중심적인 서사에 장애를 편입시켜 평등에 대해 논하는 모순적인 측면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포용적 예술 관점에서의 장애는 이분법적인 대립 구조로 정의되지 않으며, 더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포용적 예술은 장애로 인해 드러나는 차이와 다름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사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포용적 예술은 장애 상태를 부정하지 않되, 장애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장애를 가진 몸이 드러내는 ‘고유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고유성은 다양성을 내포하여 장애가 타자화(Othering)되는 것을 막는다. 또한 그 고유성은 사회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며, 예술적으로는 미학의 확장 가능성을 견인하여 동시대 예술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원동력이 된다(Bianco, Iwanejko, 2019, p. 302). 따라서 포용적 예술은 기존의 예술 작품이 장애인을 이분법적으로 재현하면서 강화시켰던 차별과 편견에 저항하고, 장애예술인에게 타자(The other)가 아닌 예술적 발화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고정적이고 일관적으로 범주화되던 ‘장애’의 의미를 더욱 폭넓게 주체화(Subjectivation)하고 사유하게 하는 활동임을 전면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앞서 기술한 포용적 예술의 관점이 예술계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국가의 부단한 노력 또한 존재했다. 영국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배제를 해결해 주는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학교의 예술교육 과정에 사회적 포용을 적용하여 가르치는 등 장애예술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과 제도 변화를 추진했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8, pp. 61-65).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영국 장애예술계는 포용적 예술로부터 ‘포용적 미학(Inclusive aesthetics)’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고, 장애예술의 수월성(Excellence)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현재는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업을 강조하는 예술적 성취를 장려하기에 이르렀다(박신의, 심규선, 주명진, 2018, p. 44). 이러한 협업을 계기로, 다양한 삶의 모습만큼 수많은 예술적 언어가 이 세상에 존재함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탄생과 동시에 부여받은 개개인의 독창적인 언어를 인식(박신의, 심규선, 주명진, 2018, p. 45)해야 하며, 이를 갱신해 나가는 예술적 실천이야말로 현대 예술의 실험적 언어 개발에 기여하면서 예술적 수월성을 담보하는 행위일 것이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8, pp. 65-66).

지금까지 ‘장애’를 주요 쟁점으로 한 포용적 예술의 관점이 각종 사회 영역과 차원에 존재하는 제도화된 차별 현상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항 방안을 모색하는 시각임을 알아보았다. 이는 ‘장애’라는 것이 ‘다양성’이라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어떤 의미로 새롭게 발현되는지를 성찰하게끔 유도한다는 점에서 무용예술교육에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포용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무용예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상성이라는 지배 담론에 기대어 형성되었던 이분법적 논리를 지양하고 다양성에 근거한 교육적 시각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장애인이 무용교육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장벽은 개인의 ‘손상’이 아닌 사회적 배제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태도 또한 요구된다. 그러므로 무용예술교육의 실천에 있어 포용적 예술의 접근이 시사하는 ‘포용’의 방향성은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포용보다는 타자화 되지 않는 존재로서의 장애인, 대상화되지 않는 가치로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예술은 무용예술교육에 있어 장애인을 학습의 적극적 행위주체(Agency)로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교육적 실천을 이끌어 낼 것으로 사료된다.

2. 포용적 예술 활동: 앨리스 폭스(Alice Fox)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포용적 예술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8년 무렵이다. 이후 국내 장애예술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면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중심으로 여러 실험적 시도와 다양한 담론들이 폭넓게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중, 포용적 예술의 모범적인 범례로 국내에 소개된 폭스의 ‘포용적 예술의 원리’는 포용적 관점에 대한 설득력 높은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 영국에서도 포용적 예술의 예술적 속성과 특성에 관한 논의는 폭스의 성과에 크게 의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박신의, 심규선, 주명진, 2018, p. 48).

폭스는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창의적 협업(Creative collaboration)’을 설명하기 위해 포용적 예술을 사용하였는데, 그가 제안한 포용적 예술 활동은 학습장애인(Learning Disabled People)⁴⁾과 비장애예술인 간의 창의적 협업이 핵심이며 해당 협업을 위한 ‘관계 설정’을 매우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다. 이러한 관계 설정에 있어, 폭스는 예술적 성취를 목표로 한 협업 구조에서는 장애예술인이 종속적인 위치가 아닌 창작에 대한 근본적 욕구를 발견하는 주체가 되어, 장애예술인 고유의 예술적 실천을 기반으로 한 주도적인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Fox & Macpherson, 2015, p. 38). 즉, 해당 작품에 적용된 개념이나 과정, 접근 방식에 철저히 주목해 예술가들의 동등한 협력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를 발견하고, 더욱 수준 높은 예술적 성취를 위해 공동의 해결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포용적 예술 활동의 본질이라 보는 것이다.

더불어, 폭스는 포용적 예술 활동에 긍정적 장애모델(Affirmative Model of Disability)을 적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없애려는 시각으로써의 접근이 아닌, 그 차이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시각으로써의 포용적 예술을 제안함(Fox & Macpherson, 2015, p. 42)과 동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협업적인 예술 활동 또한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Fox et al, 2015, p. 42). 이는 긍정적 장애 모델이 장애를 동반한 삶의 경험과 방식에서만 발견되는 유익하고 긍정적인 가치에 기초하여 차이와 다양성 그 자체를 존중하는 함의를 포함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이종정, 2018, pp. 175-181).

이러한 포용적 예술 활동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폭스는 <표 1>과 같은 포용적 예술의 5가지 주요 원리를 제시했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9, p. 12).

4) 학습장애는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발달 장애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신체적으로 의학적 기능을 상실한 모든 경우를 예술 활동의 장애로 여기는 반면, 영국에서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신체장애는 예술 활동의 장애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앨리스 폭스의 작업이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발달 장애인에 한하여 장애 유형을 제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표 1〉 포용적 예술 활동의 5가지 주요 원리

| 구분 | 주요 원리 |
|----|-----------------------------------|
| 1 | 상호이익에 기반을 둔 창의적 교환 또는 협력 |
| 2 | 관련 분야의 역량, 지식 및 기술 강화를 촉진하는 기회 제공 |
| 3 | 탈 학습(Unlearning)의 기회 제공 |
| 4 |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의 창작 및 경험 |
| 5 |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경험하고, 포부를 갖게 하기 |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상호이익에 기반을 둔 창의적 교환 또는 협력’이다. 이는 학습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창작 과정에서 다양한 소통과 질문을 통해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상호 유의미한 예술적 교류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느 한쪽의 일방적 현신을 경계하고 상호 공동 작업에서의 비포용적인 예술 활동 방식의 문제점을 되짚는 과정이자, 동시에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교류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법을 모색하는 포용적 예술 활동의 궁극적 핵심 원리인 것이다. 두 번째 원리는 ‘관련 분야의 역량, 지식 및 기술 강화를 촉진하는 기회 제공’으로, 첫 번째 원리를 전제로 한 과정 및 결과가 학습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인 쌍방의 예술적 성장을 동반 견인하고 실질적인 예술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세 번째 원리는 ‘탈 학습(Unlearning)의 기회 제공’이다. ‘탈 학습’이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에 끊임없는 의문을 가짐으로서 더욱 새롭고 발전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짐을 의미한다(박나기, 2020, p. 11). 즉, 탈 학습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인들이 상호 교류하며 배움을 습득, 그간 학습해 왔던 지식의 틀에서 탈피해 새로운 사고를 지향하는 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폭스는 이 세 번째 원리인 탈 학습에 특히 주목하여, 변화와 혁신의 출발은 열린 생각과 태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탈 학습적 관점은 장애에 대해 관습적이고 본질적이었던 기존의 통상적 개념을 거부하고, 장애를 재고(再考)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포용적 관점과도 그 맥을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다음 네 번째 원리는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의 창작 및 경험’으로, 과정 중심의 협업을 강조하는 한편 그에 따른 예술적 성취 또한 동시대 예술로서의 의미를 내포해야 하며, 예술 미학이나 예술 지평에도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리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경험하고, 포부를 갖게 하기’다. 이것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낯설고 모호할 수 있는 공동창작 과정에서 상호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예술창작 행위를 양측 예술인이 적극 합심해 전개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예술 창작의 자율 주체이며 예술적 발화 주체이자 적극적 행위 주체로서 장애예술인을 바라보는 포용적 관점과도 그 맥락이 같다.

요컨대, 폭스가 주창한 포용적 예술 활동은 포용적 예술의 의미론적 관점을 예술 창작 실행 과정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 원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주체적 협업’을 핵심 원리로 지목한 폭스의 포용적 예술 활동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춤추고 더불어 학습할 기회가 드문 현재의 무용예술교육 현장에 다양하고 실험적인 협업 구조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자극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포용적 예술 활동은 무용예술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어떻게 서로 평등하게 공존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점검하고 재구성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무용예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포용적 예술의 관점과 폭스가 주창한 포용적 예술 활동은 무용예술교육 측면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을 넘어 평등과 다양성이 기반이 된 공존하는 삶, 차이와 다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를 대하는 시각을 직시하고, 나아가 장애와 무용예술교육이 어떠한 의미와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포용적 예술의 관점과 폭스의 포용적 예술 활동이 남긴 시사점을 토대로, 포용적 접근을 위한 무용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아래와 같이 상정하고자 한다.

첫째, 특수교육으로서 장애인 무용예술교육에 대한 재고.

둘째, 장애에 대한 탈학습적 관점 견지.

셋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주체적인 협업 관계 설정.

다음 장에서는 앞서 상정한 포용적 접근으로의 무용예술교육 방향성 세 가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 하겠다.

III. 포용적 접근의 무용예술교육 방향성

1. 특수교육으로서 장애인 무용예술교육에 대한 재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교육은 특수교육으로 구분된 통합교육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특수교육의 개념은 장애 또는 특수교육적인 요구로 일반교육적 접근으로는 학습 참여와 성취가 미흡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뜻한다(Ainscow, Booth & Dyson, 2006, p. 9). 따라서 특수교육 지원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장애 식별 여부가 중요한데, 이는 보통 정상분포곡선(Normal-curve)을 기준으로 정상 또는 평균치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에 따른 통계학적인 근거 및 객관적인 자료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특수교육학이 수반된 교정 중심의 행동 분석과 중재가 교육의 중심을 이룬다(김동일, 2019, pp. 58-62).

이는 의학적 모델(Medical model)에 근거하여 장애와 특수교육적 요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장애를 개인의 병리적 현상으로 여기는 특수교육적 접근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교육적 접근은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단순화하여 인식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마는 치명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병리학 측면의 특수교육적 접근은 교육적 지원 수립을 위한 개개인의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Fulcher, 1989, pp. 32-48).

이런 의학적 모델에 근거한 특수교육의 기저에는 사회 구성원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 장애인들에게는 ‘장애’가 중심이 된 정체성을 부여하던 전통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현 사회가 장애인들을 ‘어려움을 겪는 사람’ ‘비장애인의 이해나 배려,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의존적 존재’로 여기는 것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특수교육계 내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강

종구, 이미숙, 황인영, 2020; 배찬효, 2013; 엄수정, 2018; 윤광보, 2015). 이는 포용적 예술의 관점과 폭스의 포용적 예술활동이 강조하는 다양성에 근거한 개개인의 특성과 차이가 결국 '장애'로 단순 귀결 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적 예술과 대립한다. 또한, 보편성-비장애(일반교육)과 특수성-장애(특수교육)이라는 이원화된 대립 구도로 교육에의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포용적 예술의 관점과는 근본적인 대치점을 보인다.

포용적 예술의 측면에서는 개인의 손상을 전제하는 의학적 모델(Medical model)로 장애를 인식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장애에 대한 독자적인 시각을 지향하면서 장애와 그 장애를 안고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독립적 가치에 주목한다. 따라서 포용적 예술의 접근 방식은 의학적 모델에 기반하여 장애 집단의 동일성을 분석하고 장애를 유형별로 구분 및 범주화함으로써 장애를 효과적으로 다루려는 특수교육적 노력이 오히려 개인의 고유성을 집단의 동일성으로 획일화시킬 수 있음을 역설한다.

포용적 예술의 관점은 장애가 사회 구성원들이 오랜 기간 반복적, 지속적으로 습득한 문화 교육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형성된 사회적 산물이라는 사회적 모델(Social model)⁵⁾에 근거하여, 장애를 다양성의 측면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따라서 포용적 접근에서 장애는 개인의 특성이라기보다 사회적 고정관념과 관계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차별적 낙인(烙印)이다. 장애는 장애를 가진 개인이 소외와 배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실재화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이 장애의 특성을 기능적 제한이나 병리로 정의한다면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 정체성에 대한 분리 구조 체계는 더욱 공고화될 수 있다. 오히려 교육이 앞장서 장애인을 타자화하는 기제를 끊임없이 양산해 내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포용적 접근의 무용예술교육 방향은, 의학적 모델 중심의 치료적 접근을 지양하고 장애 유형에 근거하여 특수교육 성격으로 수행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의 무용예술교육에 내재한 한계를 재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포용적 예술의 관점에서 장애예술을 치료나 재활 개념에서의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고 문화다양성과 연결하여 사유하기 때문이다. 장애를 개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수평적 차이로 인식한다면, 무용예술교육에서의 장애는 특수한 개념이 아니라 보편적 범주에서 인간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장애 유형의 범주에 갇혀 장애 너머를 상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포용적 접근의 실천 맥락에 따라 장애에 대한 성찰적 개념을 이해한다면, 특수교육으로 구분된 장애인 무용예술교육에 대한 재고는 필수일 것이다.

2. 장애에 대한 탈학습적 관점의 견지

탈학습은 언러닝(Unlearning)을 뜻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탈학습 또는 폐기학습으로 번역된다. 탈학습은 기존의 지식, 기술, 관습 등이 새로운 변화의 걸림돌이 될 때 그것을 제거하자는 것(Becker & Delahaye, 2006; 성은영, 최승연, 2020에서 재인용)으로, 개인에 내재한 선입견과 편견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타인과의 소통 및 협력에 장애가 된다면 이를 버릴 필요가 있다는 개념이다(Headberg, 1981; 성은영, 최승연, 2020에서 재인용). 이렇듯 탈학습적 관점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

5) 포용적 예술의 근거가 되는 본 '사회적 모델'은 장애가 사회적 구조로 인해 발생한다는 결론 하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기제를 제거하고 인권 확보를 강조해야 한다는 '장애의 사회적 생성주의 입장'과 해당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대하는 개념과 입장에 따라 장애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장애의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사회적 생성주의 및 구성주의 입장에 대한 개념은 이동석(2004)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거나 인식 가능한 것이 아니었던 무언가를 표상해 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환기하고(Miller, 2005: 엄수정, 2018에서 재인용) 자연화(Naturalized)되어 식별이 어려워진 관습적 사고 방식의 성찰 또한 가능하다. 측면에서 장애에 대한 통찰에 반드시 필요하다(엄수정, 2018, p. 144).

포용적 예술의 관점은 ‘비장애 중심주의(Ableism)’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된다. 비장애 중심주의 사회에서 평가절하된 장애에 대한 관습적 믿음, 차별적 과정, 특수성 실행이라는 전통적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동시대적 관점에서의 재창조를 주창하는 것이다. 따라서 탈학습적 관점은 포용적 접근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사고 관점이며, 탈학습적 접근을 통해 장애에 대한 대안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장애학(Disability Studies) 및 장애교육학(Disability Studies in Education)과도 장애의 성찰이라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한다.

위와 같은 탈학습적 관점과 관련해 수잔 웬델(Susan Wendell)은 기존의 장애 관습 해체를 위해 근본적으로 거론되어야 하는 것은 몸에 대한 관념 전환임을 강조한다(Wendell 저, 강진영, 김은정, 황지성 역, 2013, pp. 28-36). 실제로 사회와 몸의 측면에서 정의된 ‘장애’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장애로 손상된 ‘몸’에 그 이념을 투사한다. 그러므로 무용예술은 장애에 대한 사회 관습적 규범이나 시선의 권력이 갖는 정당성과 타당성에 직접적인 물음표를 던지고 장애를 규정하는 많은 개념을 시각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전복시킬 수 있는 최고의 영역이다. 몸을 소거하고는 무용예술을 논할 수 없으며, 무용예술은 몸에 대한 현 사회의 관점을 가장 집약적이고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무용예술은 여타 문화·예술 영역과 비교해 가장 효과적으로 장애 인식의 개선을 실천하고 선도할 수 있는 영역이며, 현시대의 비장애 규범에 따른 관습적 미학 개념을 성찰하고 갱신해 나가는 새로운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포용적 접근에 기반한 무용예술교육은 먼저 무용예술 영역 내에 깊게 뿌리내린, 특정 몸을 이상화(Idealization)하는 전통적 미학 기준과 탁월한 신체성이 주도하는 기존 무용의 개념을 재사유하고 탈학습적 관점에서 그 뿌리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실체가 없는 ‘정상성’ 개념을 상식으로 간주하는 기존 질서 하에서의 지식, 관계, 해석을 탈학습적인 관점에서 자문해야 할 것이다.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이 또는 다름에 대한 인식은 정상성 개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성’의 측면에서 차이와 다름은 곧 결여와 열등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정교하고 조화로우며 균형 잡힌 상태만이 ‘정상성’이라 여겨지는 무용예술교육의 장에서 장애로 인한 차이나 다름은 열등한 타자의 예술적 표현 이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정상성 개념을 탈학습의 관점에서 재정립한다면 장애는 곧 새로운 예술 창조의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도 무용예술교육의 장에서 발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그러했듯, 앞으로도 장애의 개념과 범주는 계속 변화하고 진화할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포용적 접근의 실천은 무용예술교육 영역에 단단히 뿌리내린 관습적인 몸과 움직임에 대한 개념을 해체하여 탈학습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정상성에 근거한 예술성취의 가치판단 기준을 탈학습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용예술교육의 방향성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무용예술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진입장벽은 낮아질 것이며, 더 나아가 무용예술교육의 장에서 장애는 동시대 예술의 실천적 실험과 예술 언어 개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주체적인 협업 관계 설정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주체적인 협업적 관계 설정은 포용적 예술 접근에 있어 가장 주요한 전제이다. 해석학과 사회학, 교육학, 인식론적 윤리학 등 여타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상호주체성(Intersubjectivity)’은 공통적으로 ‘상호 간 인정’이라는 의미로 널리 통용된다(권오경, 2020; 김재경, 2018; 손진욱, 2005). 즉, 타자간 서로의 고유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포용적 접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상호주체적 관계를 설정하는 데 전제가 된다.

이때 ‘상호주체성’에서 의미하는 ‘주체성’은 인간의 ‘자기 결정권’과도 일맥상통한다. 폭스의 포용적 예술 활동이 학습장애 예술가와 비장애 예술가의 협업을 강조하기 위하여 적용된 것처럼, 두 예술가 간의 협력구조는 각자의 주체적인 판단과 쌍방 간의 소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만 학습장애인, 즉 판단과 소통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인지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협업의 구조는 학습장애인이 상호주체적인 판단과 소통에 필요한 예술 언어를 자발적으로 창조하면서 자기결정의 권리성까지 성취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호주체적 관계 설정은 그간 장애인 대상의 무용예술교육에서 종종 관찰되어 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권한 차이나 어느 한쪽의 과도한 보호 또는 일방적인 통제, 편향된 시혜적 관계 등을 최소화할 바탕이 된다. 상호주체성이 보장된 협업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예술적 성취에 대한 갈망을 더 자극하고, 타인과 관계 맺음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하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가 균열 없이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장애를 대하는 사회의 인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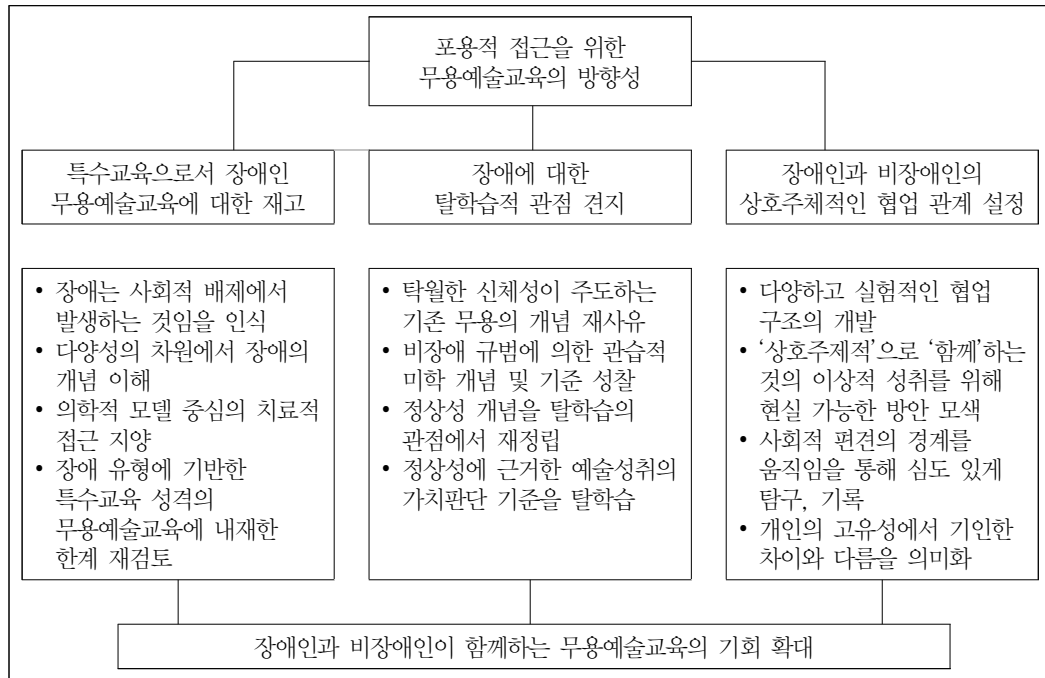
그러나 소위 전문 무용수 양성 기관인 예중, 예고, 예대의 무용전공 수업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 매우 드물다. 이는 장애에 대한 무용예술교육의 벽이 여전히 높고 공고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권에 있는 무용예술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타자화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무용예술교육에서 포용적 접근으로의 방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무용예술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담지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협업 구조의 개발은 필수적일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권력과 위계를 동등하게 구축하여, 상대를 가르치는 동시에 상대에게 배우기도 하는 동료적 협업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가르치는 주체와 배우는 주체의 지위를 고착화하거나 정체화하지 않고 자유롭게 변화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통해 무용예술교육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협업이 얼마나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시도하고, ‘상호주체적’으로 ‘함께’하는 것의 이상적 성취를 위해 현실 가능한 방안을 역동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협업적 관계에 기반하여 ‘정상성’으로 여겨지는 몸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전복시키고 개인의 고유성에서 기인한 차이와 다름을 적극적으로 발견해 무용예술로 의미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사회적 편견의 경계를 심도 있게 탐구해야 하며, 그

결과를 드러내 사회적 규범에 도전할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과 그 도전 과정을 세밀히 관찰하여 기록하는 과정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 과정이야말로 평등과 다양성, 포용성이라는 포용적 접근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행 방법이자, 동시대 장애 담론에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포용적 접근을 위한 무용예술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방향성과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포용적 접근의 무용예술교육 방향성

비장애 중심의 현 무용예술교육 체계 안에 장애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는 위와 같은 포용적 접근의 무용예술교육 방향성에 근거하여 교육의 구조와 내용, 방법을 재구성함으로써 시작 될 수 있으며, 지금이 바로 그 교육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본격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라 하겠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국내 장애예술계에서 주창되고 있는 ‘포용적(Inclusive)’ 예술의 관점을 살펴보고 포용적 예술 관점의 실천을 위한 주요 원리를 앨리스 폭스(Alice Fox)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이를 토대로 포용적 접근에의 무용예술교육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여 향후 포용적 접근으로서의 무용예술교육을 위한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영국에서 최초로 통용된 포용적 예술은 사회적

배제의 상대적 개념인 사회적 포용 개념에서 도출된 용어로, 동시대적 장애 담론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현 사회제도화에 정착된 차별주의 현상에 대항하고, 그 해결 방안을 문화 다양성의 구도에서 예술을 통해 모색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포용적 예술의 관점은 장애인 당사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예술 창작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장애가 시대의 요청에 따라 어떤 의미 및 방법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여 장애에 대한 새로운 성찰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의미론적 측면의 포용적 예술 관점을 구체적인 실천 원리로 제시한 앨리스 폭스의 포용적 예술 활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가 간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협업 구조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포용적 예술의 관점과 폭스가 주창한 포용적 예술 활동의 함의를 토대로 하여, 무용예술교육에의 포용적 접근을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 출발점으로 아래 세 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첫째, 특수교육 측면의 장애인 무용예술교육에 대한 재고.

둘째, 장애에 대한 탈학습적 관점 견지.

셋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주체적인 협업 관계 설정.

특수교육 측면의 장애인 무용예술교육에 대한 재고에 관해서는 의학적 모델에 기반한 치료적 접근을 경계하고, 장애 동일성 사유에 근거하여 특수교육의 성격으로 시행 중인 장애인 대상의 무용예술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재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장애에 대한 탈학습적 관점의 견지를 위해서는 ‘정상성’ 개념에 기반한 전통적인 미학 기준과 탁월한 신체성이 주도하는 기존 무용 개념을 재사유하고 탈학습적 관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주체적 협업 관계 설정에서는 양자가 무용예술교육의 발화 주체로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판단과 소통으로 설정하는 동료적 관계의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포용적 접근으로의 무용예술교육을 위한 세 가지 실천 방향에 근거하여 포용적 접근의 무용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제적 적용을 후속 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포용적 접근 기반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상호주체적인 협업 구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무용예술교육 영역에서의 장애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무용예술교육이 되는 초석을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김도현(2019).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 봄.
- 김동일(2019). **특수교육의 이해**. 학지사.
- 김원영(2018).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사계절.
- 김효진, 최해선, 강다연, 박현의, 이호선(2012). **모든 몸은 평등하다**. 삶창.
- 수전웬델(2013). **거부당한 몸** (강진영, 김은정, 황지성 공역). 그린비. (원저출판 1997).
- Adam, B.(2001). ***Making an Entrance: Theory and Practice for Disabled and Non-Disabled Dancers.*** Taylor & Francis Ltd.
- Fox, A., Macpherson, H.(2015). ***Inclusive Arts Practice and Research.*** A Critical Manifesto. Routledge.
- Gillian, F.(1989). ***Disabling Policies? A Comparative Approach to Education Policy and Disability.*** Routledge.
- Mel, A., Tony, B., Alan, D.(2006). ***Improving Schools.*** Developing Inclusion. Routledge.
- 강미리, 박순자(2021). 국내 청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무용교육의 실태와 제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6), 447-464.
- 강종구, 이미숙, 황인영(2020).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3(3), 1-30.
- 김재경(2018). 성정체성과 상호주체성을 통한 Fun Home 연구. **현대영미드라마**, 31(2), 33-56.
- 권오경(2020). **상호문화적 다문화교육의 철학적 근거 모색: 현상학과 의사소통행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남기(2020). 탈학습(unlearning)을 돕는 교수법. **한국교육학회 뉴스레터**, 56(1), 9-14.
- 박신의, 심규선, 주명진(2018).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을 통한 장애 예술의 개념적 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1(2), 39-61.
- 박영하(2009). 장애아를 위한 무용교육의 인지적 지도법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26, 87-108.
- 배소정(2020). 무용동작치료가 자폐성향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무용동작심리치료연구**, 4(2), 31-56.
- 배찬효(2013). 특수교육법의 교육학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탐색.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6(3), 1-20.
- 성은영, 최승연(2020). 메이커교육이 협동학습 및 폐기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예비유아교사의 가치지향성에 따른 차이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5(2), 129-156.
- 손진욱(2005). 자기심리학과 상호주관성 이론에서의 치료자-환자 관계. **정신분석**, 16, 13-27.
- 안채린(2020). 혁신적 포용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시론(試論)적 논의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문화콘텐츠연구**, 20, 89-127.
- 양정연(2019). 있는 그대로의 몸 - 장애여성공감 엮음. 『어쩌면 이상한 몸』 (오월의 봄, 2018). **무용역사기록학**, 52, 217-221.
- 엄수정(2018). 포스트 통합교육: 학교에서의 분리와 통합에 대한 탈관습적 접근. **교육정치학연구**,

- 25(2), 141-163.
- 유영은, 박영애(2019). 경계선 지적 장애 청소년의 창의성 계발을 위한 기독교 무용/움직임 프로그램 연구. **한국무용연구**, 37(1), 249-267.
- 윤광보(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의 문제와 대안 탐색.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6(3), 337-360.
- 이동석(2004).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에 따른 한국 장애인 운동의 성격 분석. **재활복지**, 8(1), 34-67.
- 이종정(2018). 장애모델의 발전사를 통해 살펴 본 긍정적 장애모델의 특성과 함의. **한국장애인복지학**, 41, 165-194.
- 정희정(2021). 무용이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변인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무용과학회지**, 38(2), 65-80.
- 조주희(2021). 장애의 사회문화적 고찰: 여성장애인의 장애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적 분석. **교육인류학연구**, 24(1), 97-128.
- 최현주, 김두영, 김호연(2020). 시각장애성인을 위한 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가능성 탐색. **시각장애연구**, 36(2), 1-24.
- Del, B., Noemi, G., Nejko, S.(2019). Inclusive arts: Meanings and practices. **Education Sciences & Society**, 10(1), 281-311,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9). 언러닝, 뮤지엄. 2019 포용적 예술 작가 육성 워크숍. 자료집.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8).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연구. 최종보고서.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8).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최종보고서.
- 제주문화예술재단(2020). 제주 장애예술 창작기반 구축사업: 폴리시랩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논문투고일 2021. 11. 15.
심사일 2021. 11. 19.
심사완료일 2021. 12. 10.

The Basic Study for Dance Education of Inclusive Approach

– Focusing on the Directions of Education –

Kim, Ahrong* · Cho, Eun-sook**

Instructor, Dance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in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College of art in Chung-Ang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Inclusive’ arts which has contributed to enhance the field of disability arts. Korea has recently paid attention to the Alice Fox’s principles of inclusive arts activities, in order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dance education of inclusive approaches. As the starting point for applying an inclusive approach to dance education, this study discusses three applications as follows.

First, a reconsideration on dance education for the disabled in terms of special education.

Second, a post-learning viewpoint on disability.

Third, establishing a mutual subjec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The study is expected to draw attention on the disability arts education in the fields of dance education and to provide a foundation to make the dance education done for all by respecting equality and diversity.

Keywords: Inclusive arts(포용적 예술), Inclusive approach(포용적 접근), Inclusive approach for dance education (포용적 접근의 무용예술교육), Cultural diversity(문화 다양성), Collaboration structure(협업 구조)